



즉시 배포용: 2022년 3월 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3월 1일 뉴욕 지하철 이용객 기록 갱신 수립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오미크론이 뉴욕을 강타한 이후 뉴욕시 지하철의 하루 이용객 수가 신기록을 갱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에 따르면, 3월 1일 지하철 승객은 3,145,29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8일 연속 7일 만에 이용객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지하철 이용객 수가 3,118,851명을 기록했던 [중전 기록](#)을 갈아 치운 것입니다. 최근 승객 수는 2021년 12월 27일 오미크론으로 인해 승객 수 최저점인 2,011,675명을 기록한 후 56 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객 수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한다는 소식은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한결같고 강력하다는 가장 고무적인 지표 중 하나"라고 Hochul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지하철은 뉴욕시의 생명줄이며, 우리는 승객들이 전처럼 지하철을 다시 이용하고 회복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국장 겸 CEO인 Janno Li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내 이동에 가장 좋은 수단이 대중교통이라는 사실을 뉴욕 주민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고 매력적인 요금 프로모션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세울 것을 기대합니다."

Craig Cipriano 뉴욕시 교통국(New York City Transit) 임시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승객들이 예전처럼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더 많은 전철 및 버스 운전자를 고용함으로써 뉴욕 주민들에게 익숙할 정도로 서비스를 더 쉽게 되돌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팬데믹이 물러나면서 승객 수는 우리에게 익숙한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승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장려하고자 MTA는 요금을 저렴하고 유연하게 하는 새로운 [요금 상한선 책정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당국의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통한 주간 요금 상한선 책정제에는 "Lucky 13" 기능이 포함됩니다. 매주 13번째 탑승부터 해당 주의 남은 기간 동안 지하철 또는 버스 추가 탑승은 무료입니다.

MTA는 교통편이 승객들에게 최대한 안전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2020년 팬데믹 시작 이후 그 해에 전례 없는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청은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고객에게 수백만 개의 마스크를 배포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전철 시스템에 주중 하루 평균 총 승객이 일반적으로 5백5십만 명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뉴욕시 지역에 치솟으면서, 지난 2020년 4월 95퍼센트가 감소하여 하루 이용자 수가 3십만 명으로 하락하였습니다. MTA 직원들은 뉴욕시 역사의 가장 힘든 시기 동안 출근해야 하는 일선 의료진과 기타 필수 근로자들을 위해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